

홍

페스티벌

2020. 10. 29(목) - 31(토)

온라인 플랫폼

YouTube **NOREUMMACHI 노름마치**

NAVER TV **홍 페스티벌**

www.nowpanfest.com
문의 : 02-6925-1255 / nowpan.festival@gmail.com

담아두면 한이오, 흥 들어내면 흥이로~

COVID-19로 인해 **제6회 홍 페스티벌이 10월 29일-31일, 3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최!**

올해의 페스티벌은 '홍'을 주제로 한 3부작 뮤직 다큐 형식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의 공연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 아티스트, 축제 기획자의 흥에 대한 생각을 함께 담았다.

1부) 흥의 DNA 10 / 29 (목) 19:00	코로나 시대 사라진 '홍'의 DNA를 찾아 떠나는 시간. 우리 가락 속에 담겨진 '홍'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홍'이 절로 나는 무대를 즐겨본다.	논산두레풍장 배일동 양진수 임과손스튜디오
2부) 흥의 PLAY 10 / 30 (금) 19:00	코로나 시대에 맞게 '홍'을 발산하는 사람들. 전통 음악에 꼭 빠진 젊은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추현종과 깎두기 모던판소리공작소 추현종 양진수 동양고주파
3부) 흥의 WISH 10 / 31 (토) 19:00	제작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홍 페스티벌'의 기획 배경과 의미. 그리고 페스티벌의 미래를 축원하는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천하제일탈 THE세로 박수빈 박순아 김주홍과 노름마치 (출 : 구명서)

신바람 학당
축제 총감독 김주홍과 판소리 명인 배일동 선생의 '신바람 우리음악' 워크숍.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한국전통문화의 뿌리를 재차 있고 쉬운 해석과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새로운 온라인 축제 방식을 선보이는 홍 페스티벌 3부작 시리즈가 COVID-19로 인해 공연과 축제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홍'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출연진 소개 (가나다순)



김주홍과 노름마치

한국전통음악의 독창적인 음악어법(장단, 호름, 시김새)과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추구한다. 60여개 국가, 200여개 도시의 무대에서 '보이스 퍼커션', 팽과리, 징, 장고, 북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와 장단으로 신명과 감동을 선사하며 우리 시대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논산두레풍장

내는가락-가는풍장(굿거리)-자진마치-늦은마치-자진마치-두마치로 진행되는 논산두레풍장 소리는 결코 화려함에 있지 않다. 북의 우직한 소리를 기동 삼아 장구의 엷박과 뒷소리가 북의 사이를 파고든다. 단순한 가락들을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는 쇠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각기 자유롭게 연주하며 흥을 내는 한마당 푸짐하고 맛깔스런 판. 이것이 논산두레풍장 소리이다.



동양고주파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그 어디쯤의 경계. 동양고주파의 음악은 장르적 기준이 없다. 프로그레시브록, 국악, 팝, 아트록 등 다양함을 지향한다. 악기들이 만들어 내는 점들은 하나의 선(율)을 이루어가고, 선들은 다른 이의 선과 교차 하여 때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때로는 유려한 곡선을 이루며 떨어진다. 베이스와 퍼커션이 만들어 내는 기반은 견고하며, 그 위에 쌓이는 앙금은 화려 하며 때로는 처연하다.



양진수

양진수는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겨레의 화합에 이바지하는 삶을 지상목표로 국악활동을 하고 있다. 분단 극복의 요체는 동질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정서가 담겨 있는 국악과 전통예술이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음을 갖고 다양한 곳에서 전통과 국악을 교육하고 있다.



임과손스튜디오

임과손스튜디오는 오랜 기간 판소리 창작작업을 이어 온 소리꾼과 고수가 모인 창작공동체이다. 임과손스튜디오는 판소리라는 연희양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험하며,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확장, 또는 변형하는 작업과 연구를 통해 '판소리 창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판소리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려 한다.



천하제일탈공작소

천하제일탈공작소는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젊은 탈춤꾼들의 예술단체이다.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시키고 현 시대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다.



박수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 국악기 생황을 연주한다. 블루스와 모던재즈, 오르간으로 연주되었던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면서도 한국음악에 뿌리를 두고 전통음악의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대중이 향유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데 작업 중이다.



박순아

음악과 세상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는 작업은 큰 울림으로 또 다른 세상을 향한 생각을 얻게 한다. 평양과 서울의 기억을 두손에 담고 있는 그녀는 남쪽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뿌리과 북쪽의 자유를 향한 갈망의 뿌리를 하나로 엮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 자신만의 언어인 가아금이라는 현의 소리는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며 그 뛰어난 연주기량으로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배일동

고제(古制) 판소리의 맥을 잇는 소리꾼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성우향, 강도근으로부터 사사받았다. 2010년에는 사이먼 바커와 사물놀이 명인 김동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예술정신과 문화적 우수성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화 '땀, 마스터 김, 에 출연하기도 했다. '독공,' '독음' 등의 저서를 출간해 왔으며 현재 배일동 판소리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모던판소리공작소) 춤춤

춤은 판소리, 민요를 주축으로 실험적이고 재밌는 소리판을 벌여 서로에게 춤춤 마음을 열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시 청년예술가로 선정되어 탄탄한 예술적 기량을 갈고 닦은 바 있다. 춤춤은 동시대의 언어로 소통하며 신선한 재미와 따뜻한 감성으로 현대인을 위로하고자 한다.



추현종과 깎두기

창작집단 깎두기는 연출가이자 배우 추현종을 중심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다방면으로 인정받고 있는 타악 전공자 및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깎두기가 선보이는 공연은 우리의 장단과 마술, 소리, 재담이 버무려져 전통과 해학을 담고 있다. 웃음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공연은 관객들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는다.



The세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동문 4인으로 구성된 The 세로는 전통음악어법에 기반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판소리 서사를 동시대 젊은 세대의 시선에서 해석하여 서사 속의 인물의 내면심리, 인물과 사회의 관계 등을 소리, (춤)가아금, 아쟁, 장구 등으로 표현 하면서, 국악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함께 만든 사람들

홍 페스티벌 총감독 | 김주홍
홍 페스티벌 총괄기획 | 오현주

나레이션 | 1부 - 김주홍
2부 - 이호원
3부 - 오현주

음악 | 김주홍과 노름마치
SSBD 프로젝트
더빙믹싱 | 사운드스케이 나승일
동시녹음 | 김영교

장소협조 | 1부 - 논산 부안리, 명재고택, 현천동 배밭, 망월동 산이네회무침
2부 - 인스타일, 명성현우 정육점, 스프링켓, 꾸민방 홀 인터리어, 연탄불 소금구이, 미미세탁, 고수(고기도 국수만), 목야박물관, DSM스퀘어 아트홀, 형제대장간, 망월동 산이네회무침, 흥제유연
3부 - 서울남산국악당, 목야박물관, 노름마치 스튜디오, DSM스퀘어 아트홀, 남애향, 사근진 해변

촬영협조 | 1부 - 논산 부안리, 명재고택
2부 - 목야박물관, DSM스퀘어 아트홀, 서대문구 안전치수과
3부 - 서울남산국악당 기획팀, 목야박물관, (사)노름마치예술단, DSM스퀘어 아트홀, 남애향 어촌계, 남애향 스킨스쿠버 체험관, 사근진해변 주민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마포구청, 캐럿코리아(당근영어), (주)모터원
주최 | (사)노름마치예술단, NOWPAN ENT.
주관 | NOWPAN ENT.
기획·홍보·마케팅 | NOWPAN ENT. (최윤자, 박민주, 김희원)
온라인서비스 | YouTube, Naver TV
자료조사 | 지한결
글 구성 | 마정림
조연출 | 유미리
김송이
김동현
연출 | 우현수
웹페이지 | www.nowpanfest.com

ON AIR 신바람 퍼레이드

제 6회 '홍 페스티벌'이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흥대 걸고 싶은 거리에서 진행되던 기존의 '신바람 퍼레이드'의 방식을 변경하여 온라인 영상 퍼레이드로 진행! 자신의 '홍' 혹은 '함'을 표현한 영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영상들로 온라인 퍼레이드-

- 공모 마감 : 11월 8일(일)까지 [총 상금 600만원]
- 선정 발표 : 11월 12일(목)
- 영상 공개 : 11월 16일(월) [온라인 플랫폼 YouTube NAVER TV]

< 상금 내역 >

대상	1팀	1,000,000원
최우수상	5팀	300,000원
우수상	10팀	200,000원
홍상	10팀	100,000원
신바람상	10팀	50,000원

*기타사업소득세전금액 (기타소득 8.8%)입니다.

< 참여방법 >

아래와 같은 방법대로 인스타그램에 영상 포스팅 후 구글폼을 통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1. 인스타그램에 나의 '홍' 혹은 '함'을 표현한 영상 포스팅

- * 포스팅 시 반드시 다음 해시태그를 올리주세요. (#홍페스티벌 #노름마치예술단 #NOWPAN_ENT #신바람퍼레이드 #홍 #함)
- * 비공개 계정일 경우, 해당 영상물은 반드시 전체공개로 게시해주세요.
- * 1:1 비율 최고화질 / 30초 이내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https://bit.ly/3jXf2UC>

- * 신청서 링크는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 * 동영상 저작권 발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금 선정과 영상 퍼레이드 참여에 제한됩니다.

NAVER TV Instagram 구독 & 팔로우 필수!

당근영어

집에서 마주 보는 미국 원어민 선생님!

보이는 전화 영어

현지 원어민 선생님과 1:1 회화 수업으로 더 재미있게, 더 다양하게!

20년간 1,000여 개 기업이 당근영어를 선택한 이유는?

- 언제 어디서나 수업 언제 보이는 전화영어
- 국내 최대 북미 원어민 강사진 보유
- 전화영어 업계 최초 20년 전통의 노하우!
- 14개 언어를 쉽고 빠르게 학습!

당신의 Speaking, 당근영어가 함께 합니다.

[무료 체험 수업 신청하기](#)

New E. New Attitude. The new E-Class.

모터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럭셔리와 시작 The new E-Class.